

2014년 12월 8일 새벽정리요약말씀

(예수님사진. 선생님께서는 밝은 곤색 양복을 입으시고, 주황색 야자수넥타이를 하셨습니다. 앞에는 노란색 들꽃이 보이고 뒤에는 대둔산 기암절벽이 보입니다.)

네, 새벽입니다.

발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듣고 신앙적 형이상학 세계나 또 육적인 형이하학의 두 세계에서 우리가 배우기만 하지 말고 즉시즉시 써먹으라는 것입니다.

“즉시 써먹어라. 발에 감추인 보화다.”

오늘 아침에도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발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전반전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보화 값을 다 내고서 보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발 값만 내고 보화를 얻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보화 값을 다 내면 발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값을 주니까. 그 돈 가지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금 덩어리나 조상들이 묻은 보화를 발견한 것만 보화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보화인가 하니 ‘자기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인생이 세상 발에 묻힌 보화다. 세상에 묻힌 보화다. 보화를 발견하라. 인생 보화. 자기가 보화다.”

‘내가 안 하면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은 딴 것 없다. 귀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는 내가 말 안 하면 모른다.’ 이와 같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말 안 하면 몰라.” 그 소리를 잘 합니다.

“성서의 깊은 진리의 말씀도 보화다. 발에 감추인 보화다.”

성경 속에 있는 보화를 내가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속에 있는 보화!

자기가 보화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꼭 못을 박아놓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보화다! 그 터전 위에서 또 말씀을 들겠습니다.

세공 하듯이 자기도 만들어라! 그러면 비싼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고, 말씀 깨닫고 따라오는 사람은 벌써 그렇게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개발된 것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기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하는 것이 보화이다!

무슨 일을 할 때 세밀하게 하면 그것이 보화입니다. 보화를 가공할 때 세밀하게 합니다. 세공할 때 세밀하게 합니다. 보석 같은 것을 가공해 놓은 것을 보십시오. 쓰루 다이아 같은 것, 가짜 다이아몬드 그 작은 것을 다 물려놓은 것을 보십시오. 다 물려 놓았습니다.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 세밀하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늘귀를 꿰듯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밀히는 하는데 또 큰일은 못 합니다. 세밀하게 하면서도 큰일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또박또박 세밀하게 하고, 옆의 사람에게도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도 세밀하게 관찰하고, 세밀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님입니다. 자상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려면 세밀하고 자상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화라는 것입니다. 자기 갖고 먹고사는 것입니다. 자기 기술 갖고 먹고살고, 자기 기술 갖고 인생 살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화로 쓰여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은 힘을 빼고 하라.” 그것도 보화입니다. 아이디어 보화. 힘을 빼고 하라는 것. 톱질할 때도 힘을 주어서 하면 막 끊어갈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힘을 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부가에서 “슬근슬근 톱질하세.”라고 나왔습니다. 슬근슬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팍팍 먹어 들어 갑니다. 볼 찰 때도 발을 다 뺀고 차면 멀리 안 나갑니다. 슬쩍 툭 차면 배(倍)이상 많이 나갑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보화 가공하는 법을, 자기 인생 가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겁 집어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딪혀 보고, 따져보고, 이야기해 보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나가십시오.

발에 감추인 보화 중, 자기라는 보화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귀한 것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화입니다.

자기라는 보화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보화를 볼 줄 압니다.

섭리사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여자는, 저 남자는 하나님이 볼 때 보화이니까 이렇게 섭리사로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기 인생이 보화라는 것을, 아주 핵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 하나 더 하려고 했지만, 두 개를 하다보면 하나가 약화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보화이다. 보화이니까 하나님이 이 섭리에 불러왔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인생을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철학을, 신앙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주 가소롭게 생각하면서 하라.”

“세상 모든 것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부지런히 뛰고 달리면서 하라.” 그것입니다.

선생님 설교는 100번, 1000번 들어도 맨날 감동적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힘을 주어야 넘어갑니다. 전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본인이 반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고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벌떡 넘어갑니다.

일을 할 때도 자기가 반 이상은 표가 확 나고, 나머지를 자신 있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하면서 된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하면서 된다고 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상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감행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작가들도 작품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재미있게, 뜻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말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딱 돌려놓습니다. 기도해도 얼마큼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믿어주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누가 “선생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면 “그래.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나 “내가 이렇게 안 되었어도 선생님이 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웃으면서 “내가 한다고 무엇이 되느냐? 네가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들어붙어 있으면 선생님께서 그냥 손가락 하나의 힘 갖고서 해 줍니다.

“내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위신을 안 꺾고 나에게 대한 권한을 꺾지 않고 나의 위신을 세워 주었기 때문에 되게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보화라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보화다. 생각 보화, 육체 덩어리가 보화, 그리고 자기 영, 아이디어 모든 것이 보화이다. 자기의 보화를 확실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써먹어라. 자기를 지혜의 보화 되게 만들고, 자기를 지식의 보화 되게 만들어서 지식과 지혜로 꿰뚫어보면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보화를 확실하게 깨닫고, 만들고, 가공하라고 그랬습니다. 나무를 조각하듯이! 그러면 10배, 20배, 50배 더 값있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월명동 성지땅도 하나님의 구상대로, 그대로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은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그리고 돌 갖고 오는 것을 돕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쓰고 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만드니까 성지땅 보화가 되듯이 우리들 개인도 만들고, 모든 환경을 만들면 보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들 때는 힘들지만 만들어 놓으면 일생 동안 써먹는다고 했으니 그리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우리를 사랑

하사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빠이 빠이! 안녕!